



대림 제4주일(12월 22일)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루카 1,39-45)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이 그림은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다. 엘리사벳은 문 앞에서 따뜻한 눈길과 자세로 마리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그들 앞에는 이 거룩한 만남의 '증거자' 역할을 하는 두 여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맨발인 것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임을 상징하며 적색과 녹색은 이들이 간직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생명을 나타낸다.

작가 폰토르모 | 1528년경, 202x156cm, 패널에 유채, 카르미냐노, 성 미카엘 수도원.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9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40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42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44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45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위해 나는 기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루카 1,41 참조)

내가 바라는 행복은 하느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루카 1,45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대림 제4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오시기로 약속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세상과 인류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 또한 이 아드님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엘리사벳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에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루카 1,45) 이 사실은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게 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뜻이 실현된 구체적인 모습인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삶 안에서 실현하게 될 때,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행복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1장 45절]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준비하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 맞이 ▶ 교황님 12월 기도 지향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① 20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를 읽은 후, 다음 모임 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나눠 보기

내 삶 속에서

① 2025년 정기 희년 공식 홈페이지 살펴보기 ▶
② 로마서 5장 1~5절을 읽고 내 삶의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는지 성찰해보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